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기탁식 개최 누적 참여 98명, 모금액 3억 2,764만 원 달성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이광용)은 지난 8월 28일 광양시청 만남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기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후원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탁식은 광양시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뜻을 모아 마련된 자리로, 6명의 기부자가 총 1,48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자 및 기부 금액은 △취대운인텍(대표 김덕영) 500만 원 △광양시민간이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영화) 280만 원 △무궁화복지월드 광양봉사단(단장 김종탁) 200만 원 △내친구어린이집(원장 박은미) 200만 원 △안테르센어린이집(원장 안영선) 200만 원 △광양시어린이집법인연합회(회장 홍미애) 100만 원이다.

김덕영(취대운인텍 대표)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동참했으며, 앞으로도 광양시의 보육 발전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화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뜻깊은 자리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기업과 시민, 그리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보육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연합회도 현장



의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탁 무궁화복지월드 광양봉사단 단장은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희망”이라며 “무궁화복지월드 는 지역과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나누어 왔으며, 이번 기부도 그 연장선으로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미 내친구어린이집 원장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은 지역사회의 큰 희망으로, 우리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양에서 태어난 아이는 광양 시민이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

이들을 정성껏 돌보겠다”고 말했다.

안영선 안테르센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많은 분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셨다”며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재단과 지역사회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홍미애 광양시어린이집법인연합회 회장은 “우리 아이들은 광양의 내일이자 미래”라며 “연합회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돌보며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 함께하는 마음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미

래”라며 “오늘 기탁식은 그 소중한 미래를 위해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의 기부 릴레이가 더해져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재단과 함께 다양한 보육 정책을 추진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용 재단 이사장은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과 기업 덕분에 재단은 든든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사랑은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양에서 태어난 아이는 광양시민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이 아이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기념 배지와 기탁식 사진 액자를 전달하고 이름을 현액판에 등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98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모금액은 3억 2,764만 원에 달한다. 광양/신선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공단-지자체 현직조사 업무 간담회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2025년 8월 27일(수) 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관내 43개 지자체 담당자들과 장기요양 현직조사 공단-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단과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5년 현직조사 추진방향, 조사절차 및 유의사항, 행정처분 절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수급실사 확립 방안 마련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현직조사

사전통지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을 주제로 지역본부 변호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한 현직조사 실무 특강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영희 본부장은 “공단과 지자체, 공급자의 상생협력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당청구 사전예방 교육과 자율점검 확대, 부당청구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기억을 지키는 따뜻한 마을, 우리 함께 만들어요

담양군, 제4호 치매안심마을로 가산2구 회룡마을 지정

담양군은 28일 담양읍 가산2구 회룡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안심마을 소개와 치매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 수칙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회룡마을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모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되었다.

이번 지정으로 가산2구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 치매 예방 교육,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들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박주호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해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마을로, 담양에서는 앞서 금성면 석현마을, 고서면 덕촌마을, 창평면 사동마을이 지정된 바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어두운 집, 환하게 밝혀준 신전면 복지기동대의 따뜻한 손길

복권기금 활용 취약가구 10곳 LED 전등 설치 주거환경 개선 앞장

강진군 신전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밝은 빛을 선물했다. 복지기동대는 관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등이 노후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 전등을 철거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등으로 교체했다.

이번 전등 교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상 가구는 기동대원의 추천과 면사무소 복지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선정했으며, 설치 전후로 주민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해 만족

도를 높였다. 새로 설치된 LED 전등은 기존 백열등보다 전력 소비가 적고 밝기가 뛰어나 어르신들이 야간에도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일부 가구에는 스위치 조작이 필요 없는 센서형 전등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세심히 배려했다.

윤정석 신전면 복지기동대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전등 교체가 아니라 주민의 안부를 살피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이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저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복지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희 신전면장은 “복지기동대는 손길



이 닿지 않는 곳을 먼저 찾는 복지 최전선의 존재”라며 “복권기금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전면 복지기동대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전등 교체뿐 아니라 소규모 집수리,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